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3월 24일 (제1246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야성을 찾아라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이 마을은 오랫동안 펠리컨의 천국이었다. 그곳 바닷가 옆에 생선 통조림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는 내장이나 잔챙이는 그곳에 사는 펠리컨들이 먹도록 개펄에 버렸기에 펠리컨의 충분한 식량이 되었기 때문이다. 굳이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었으니, 사람으로 치면 호텔 침대에 식사가 배달되는 격.

그러던 이 통조림 공장이 이주했다. 매일 일정하게 배달되던 펠리컨의 식사가 중단된 것이다. 그런데 펠리컨들은 여전히 개펄만 뒹고 있었다. 물고기를 사냥하던 본성을 완전히 잃은 것이다. 마침내 펠리컨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를 본 어부들은 안타까워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펠리컨을 몇 마리 그곳에 풀어놓았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던 이곳의 펠리컨들이 그것을 보고 쫓아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나는 ‘야성을 잃은 호랑이가 되지 말라’고 늘 말한다. 야성을 잃게 되면 천하의 호랑이도 앞에서 알짱대는 쥐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한다.

왜 야성을 잃을까? 바로 편안함 때문이다. 던져주는 내장이 펠리컨을 편안하게 했고, 그것이 야성을 잃게 했다. 사람이 가져다주는 먹이나 먹는 호랑이는 점차 야성을 잃고, 고양이처럼 재롱이나 떠는 것이다.

마귀의 전법이 이렇다. 마귀는 우리를 사지로 몰지 않는다. 사지로 몰면 야성이, 믿음이 더욱 살아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터 더욱 신앙의 날이 서지 않았던가.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만든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야성을 깨우셨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사냥하는 펠리컨을 들여와 본을 보였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만물을 명령하라.’ 하시며 직접 본을 보이셨다. 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야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보증 서주는 자가 되라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을 맡기든 책임감을 갖고 완수해내는 사람은 어디서나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보증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

목사님은 수요일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보증 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표자는 아브라함입니다. 하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미국에 들어갈 때 입국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내 선교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국심사대에 줄을 서지 않고 별도로 설치된 자동출입국심사 무인단말기에 여권만 대면 통과합니다. 미국의 입국심사 우대제도에 따라 한미 양국의 신원조회를 통과하여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도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심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13:22).

나는 이번에 서울교회 건축에 쓰라고 제공한 나무들을 옮기는 일에 내가 직접 고가사다리를 타고 나무에 올라가 전지를 하며 신학생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조경학과를 나와 직접 그 일에 종사해 온 신학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주의 종 길을 가는 자들이라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로 순종뿐이



나님은 그를 친구로 여기셨고,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만큼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은 만사형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사 기름을 부으시고, 인을 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고후1:21~22).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보증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保證)의 한자를 보면 보증할 보(保)에 책임질 증(證)입니다. 보증하여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도열한 천군 천사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입성하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일을 시킬 때 먼저 그 일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보고 뛰기 때문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지칠 줄 모릅니다. 천국의 가치, 상의 가치를 알면 나처럼 목숨까지 던져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보증해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줘야 합니다. 그런 자의 삶은 넘지 못할 벽이 없고, 만사형통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니 일을 진행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고 보증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보증하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롬14:18).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전들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던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믿고 보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4:7)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

30여 년 전 즈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처럼 해후한 친구와 저는 제3한강교를 걸으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내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네. 얼마 살지 못한다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이 있어서 왔네. 자네가 내 아내와 자식을 맡아주게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내가 어떻게 자네 아내와 자식을 맡는단 말인가?” 했더니, “지난날 내 동생 대학 입학금을 대준 것도 자네였고, 내가 취업할 때 보증을 서준 것도, 병원비를 대준 것도 자네였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네밖에 내 가족을 맡길 사람이 없어 이렇게 불쑥 자네 찾아왔다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을 떠날 때 내 가족을 맡길 사람이 있나?’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럴 사람이 제게 없었습니다. ‘아!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며 통탄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얻으리라.’

30년이 흐른 지금,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 목숨까지 던져 줄 동역자, 동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맥을 형성했고, 그 인맥이 다리가 되어 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습니다. 제가 74개국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이러한 인맥의 힘도 분명히 작용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인맥 쌓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인맥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2천 년 전에 예수님은 혼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열두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고, 70인의 제자,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11:30)는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럼요, 만물과 만인을 활용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같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이보게, 자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무성하니 이제 그 일에서 손을 떼게.”라고 말했습니다. 청지기는 졸지에 백수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깊이 생각하다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빛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겼소?” 물은 뒤에, 그 사람이 ‘기름 백 말의 빚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빚문서를 꺼내놓고 “여기 백 말을 지우고 오십 말이라고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겼소?” 하고 물어 “나는 당신 주인에게 밀 백 섬

의 빛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에게도 빚문서를 보이며, “여기 백 섬을 지우고 여든 섬이라고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빛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비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주인 귀에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갔지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예상외였습니다. 노발대발할 줄 알았는데, 되레 주인은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청지기는 아직 권한이 있는 동안에 권한 안에서 기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가 얻은 것은 사람이었고, 그러한 지혜로 자신의 미래를 예비한 것을 주인은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눅16:8). 지혜가 제일임을 말씀한 겁니다(잠4:7).

여러분, 인맥은 금맥입니다. 이번에 나무 이식(移植)작업을 할 때 보니까 장비와 연장이 좋으니까 일이 똑딱 됩니다. 호미로 파고 삽으로 파면 몇 달 걸릴 일을 포

크레인으로 하니깐 며칠 사이에 끝납니다. 인맥이 이 포크레인과 같습니다. 세 상사를 쉽게, 원활하게, 성사되게 합니다. 이승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초석도 인맥에 있었고, 전 현대그룹 회장인 정주영 씨나 전(前) 삼성그룹 회장인 이병철 씨가 그룹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인맥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세에게 인맥 관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자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들 라오펜과 그 동맹한 왕들이 침입하여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 318인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가 조카 롯을 찾아왔습니다. 318인은 바로 믿음과 정의의 용사들로, 아브라함의 인맥이었습니다(창14).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37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 배후에서 그를 돕고 따르던 자들입니다. 용사들이 바로 다윗의 조력자이며, 다윗의 인맥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약관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인맥형성의 결과입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보복성 위증으로 옥에 들어갔지만, 술관장을 만나 인맥을 쌓았기에 바로의 꿈도 해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창40).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하소연하기를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태 병든 채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맥 형성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사

람 하나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보세요. 그는 비록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였지만, 인맥을 잘 쌓았기에 네 명의 친구들을 동원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인맥은 금맥이요 성공의 인프라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인맥을 형성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과 잘못된 연을 맺으면 그것이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와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먼저는 값보다 가치를 봐야 합니다. 학력이나 가문,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연을 맺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과 연을 맺었기에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생이라고 무시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보다 실력 있는 자, 나보다 가진 자, 나보다 경험이 많은 자, 나보다 영향력 있는 자와 연을 맺는 게 좋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만물과 만인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면, 지혜 중의 지혜는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을 끈끈하게 맺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 맥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영영하시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관계가 잘 형성되면 만사(萬事)가 형통이요, 난사(難事) 역시 형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맥이 얼마나 단단하게 맺어졌는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롬8:35).

저 역시 찬양 시에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모든 친구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롯이 나오미가 밀어내도 불든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라해도 요지부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순간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 자르듯 한다면 하나님도 그런 자와 관계를 청산하실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연을 끊더니 어찌 되었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간접자본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세요. 분명히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약1:5).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가올 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하 연준)는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준금리까지 급격히 하향 조정하여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차단하였지만 실물경제까지 원활하게 유입되지는 않았습니 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 및 주요 국가 정부들은 가계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금까지 제공하여 경제활동의 단절은 방지하였지만, 심각한 물가상승과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부채를 유발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리를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시키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국 장기국채의 가격까지 하락시켜 발생한 사건이 2023년 초에 발생한 SVB(Silicone Valley Bank,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입니다. 이후 미국 재무부는 장기채권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또한 연준의 역레포(reverse REPO) 자금까지 활용하여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뉴욕증시의 특정 기술주 종목과 변동폭은 크지만 BTC(비트코인) 시장 에까지 투자자금들이 유입되도록 하여 지표상으로는 건실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기축통화 발행국이라 하더라도 조달되고 있는 재원의 원천이 부채이기 때문에 악화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매우 취약하고 민간차원에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괴리는 크

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보다는 국가 재무 건전성이 훨씬 안정적이고 양호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할 경우,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내형 부동산 PF는 처음 시작되었던 90년대 말부터 현재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큰 손실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새롭게 참여한 각 증권사 및 다양한 금융기관이 주도한 PF 사업장들과 연관된 추정 손실금액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듯,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재화나 용역도 실질 가치에 수렴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현재의 불안정한 미국 시장도 반드시 균형점으로 조정될 것이며, 한국의 부동산 및 자산시장 또한, 조정을 받은 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회귀할 것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재화를 취득할 때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을 생각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도 ‘오리를 가져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라’(마5:41) 하시지 않습니까? ‘조급과 무리는 동색이라’ 매사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임윤석**

:: 신앙논객 ::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유럽 선진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임신중절수술을 통한 유산)할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헌법에 담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등 이미 법률로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많지만, 헌법에까지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경우는 프랑스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되었고,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에펠탑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갈아 띄워졌다. 로마 교황청이 표결 직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는 반대 성명을 냈지만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 사실 이보다 몇 주 전에는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 정교회 신자인 그리스에서 동성 결혼과 동성 부부의 아이 입양을 합법화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이쯤 되면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다수결에 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됐

을 때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승리를 예언한 반면, 오직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그들이 패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이 흩어질 것이라 예언한다. 다수의 듣기 좋은 말에 혹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전장에 나간 아합왕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있던 유대인 대다수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던가. 많은 사람들이 옳게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서 믿는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딤후3:13~14). 남들도 다 그러니까, 해도 아무 일 없으니까, 많은 이들이 좋아하니까 그 일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인본주의(人本主義) 사상이다. 우리는 신본주의(神本主義), 즉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교회 이름이 괜히 ‘예수중심교회’였는가. 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중심으로 살자. **신혁주 전도사**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시골의 조그만 병원에 행색이 초라한 여인이 찾아와 의사에게 애원한다. “선생님, 제 남편이 죽어가니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의사는 서둘러 왕진 가방을 챙겨 사람부터 살리자며 앞장선다. 초라한 집에 도착한 의사는 남편을 진찰하고는 큰 병이 아니니 안심하라 말하고, 병원으로 돌아와 작은 상자를 건네며 집에 가서 열어보시고, 안에 적힌 처방대로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말해준다. 여인이 집에 돌아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한 뭉치의 돈과 쪽지가 들어있었는데 쪽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있었다. “남편분은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이니 이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이세요.” 이 사람이 사랑의 인술을 펼친 영국의 유명한 의사 ‘올리버 골드 스미스’이다. 예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복음을 증거하셨

다. 또한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대속물로 주시며 사랑을 완성하셨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희생을 통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 안에서 모두가 섬김의 자세를 갖는다면, 역으로 생각할 때 모두가 섬김을 받는 자만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할 때 예수의 사랑과 평강은 넘치게 증거될 것이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기억하자.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5).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영생에 이르는 길 ::

죄로부터의 자유

얼마 전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는 길에, 최근에 나온 차를 운전할 일이 있어 고속도로에서 주행보조장치를 이용해 보았다. 차량의 속도를 정하면 엑셀을 밟지 않아도 일정 속도를 유지해주고, 달리는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차선을 인식하여 핸들을 조향하고,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면 스스로 차의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해주었다. 잠깐이지만 두손 두발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차는 안전하게 주행하였다. 이런 일련의 기능들을 사용하여 운전을 해보니 신경 쓸 일이 별로 없고, 편하여 장시간 운전을 해도 피곤함이 없었다. 가히 신세계였다. 말로만 듣던 최신 기능들을 경험한 후 완전한 자율주행의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사실 자율주행은 이미 구현되어 있었다. 마차가 나오던 시절부터 누군가는 자율주행의 혜택을 누렸으니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면 자율주행과 다름없지 않을까? 운전하는 사람을 따로 두어 운전하는 노동과 수고로움에서 자유를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도 이

와 동일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원죄를 가지게 된다.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도 대신해서 깨끗게 해줄 자가 없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의 짐을 맡기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차량의 운전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사람이 운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이 오겠지만,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자. 훗날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3~24). **최성경 전도사**

믿음의 사람들의 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16:24).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에 치료하는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말의 힘입니다. 우리 입의 말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정적이고 꼬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우리 믿음의 말이 우리 앞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의 언어로 축복합시다. “네 믿음대로, 네 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내 입술에 믿음의 말, 축복의 말로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의 홍수 시대로 무책임한 말, 언어의 남발로 세상이 질식할 만큼 오염되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에 말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말에는 생명의 언어가 많은지요? 아니면 죽음의 언어가 많은지요?
믿음의 사람은 말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말하는 훈련이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생명의 말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약3:3). 사람은 누구나 말로도, 여러 가지로도 실수하며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까지도 보호하시려고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도피성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용서와 안식과 자유

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이신 말씀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주님을 향한 말인 기도는 믿음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기도와 말씀으로 위기와 상황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믿음의 조상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엿드려 주님의 말이시며 주님 그 자체이신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끝냅시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에 영적 호흡이며, 주님을 향한 우리 말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목사

Good News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닻은 배를 정박할 때 줄에 갈고리 모양의 쇠덩이를 묶어서 내리는 것입니다. 닻이 없으면 배는 정처 없이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소망의 닻이 없는 자들은 세파에 떠밀려서 어디론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짜 소망은 물거품과 같이 손

에 쥐는 순간 사라지고 말지만,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환난의 바람과 파도가 몰려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언젠가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함이 없는 돈도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때로는 돈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람도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

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끊어질 날이 다가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선 자들처럼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어쩔퐁이나마 죽은 뒤에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아무렇게나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화평 목사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노량진 교육관) 유튜브 생방송 문의 02. 533. 9191

어느 권사님 이야기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 보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했다. 호스피스는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동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 간병인으로 섬겼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온갖 궂은일을 성심성의껏 봉사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시켜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며, 그분을 위해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할머니

에게 뜻밖의 요청을 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권사님 대답이 더 재밌다. “그래요. 까짓거,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간병인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주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이 할아버지가 임종하면서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신앙고백을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통

장에 있는 29억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되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던 것이다. 석 달 만에 29억 원이 들어왔다. 그 권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적이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골3:22~23).

연습이 필요해

작년부터 수영을 배우고 있는 아내가 양팔로 수영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내게 말한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막상 물에 들어가면 잘되지 않아 이상하다고. 의아한 표정인 아내에게 나는 대답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라고.
뭐든 처음에는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몸에 익숙해지며 힘이 조금씩 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습관적으로 움직인다. 사실 이 원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심지어는 결혼 생활에서도 그러했다.
나와 아내는 연애 때부터 마음이 잘 맞았고, 결혼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종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툰 때가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투야 하나, 아내가 꾸밈 섞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 깨달았다. 신혼 때 얼마나 서로 마음이 잘 맞는지는 출발선만 정해지는 것이고, 그 후부터는 계속 서로에게 맞추고 맞춰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신혼의 달콤함이 지나가고 욕아가 시작되면 마음의 여유가 많이 사라진다. 동시에 서로의 다름도 점점 더 발견하며 서로 맞춰가는 데 힘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 익숙해진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기도도, 말씀 묵상도, 교제도 모두 익숙하지 않을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연습이 될수록 힘은 점점 덜 들어가고 은혜는 커진다. 삶 속 여러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 가고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버티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 정금같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10).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